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89-426  
<https://doi.org/10.29212/mh.2019..110.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

김인승\*

1. 머리말
2.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유엔군의 서해 도서방어 작전 연구
4. 유엔군의 서해 해상철수 작전 연구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전쟁이 근현대 전쟁사 연구가들에게 있어 잊힌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면, 전쟁 후반 2년여 동안의 유엔(UN) 해군 활동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힌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인천상륙

---

\*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작전 및 흥남철수로 대표되는 전쟁 초반의 몇몇 드라마틱한 작전을 제외한다면, 후반기 대부분의 해상작전은 봉쇄(Naval Blockade)로 대표되는 지극히 정태적인 활동의 연속이었다.<sup>1)</sup> 극적인 초반부와 정태적인 후반부로 명백히 구분되는 해상작전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연구자들의 관심은 긴박했던 초기 1년여의 해상작전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더 길었던 후반기의 활동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sup>2)</sup> 필드(James A. Field Jr.)의 분류법처럼 연구자들에게 있어 한국전쟁의 후반기 해상작전은 ‘2년 더(Two More Years)’라는 짧은 문구로 대표되는 단조롭고 지루한 활동의 연속이었다.<sup>3)</sup>

문제는 후반기 해군작전에 대한 학계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같은 기간 해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던 몇몇 역사적 활동들 역시 함께 주목받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작전활동이 이루어졌던 서해전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도서가 적어 일상적인 형태의 해군작전 이외에 여타 작전활동이 수행되기 어려웠던 동해전역과는 달리, 서해전역의 경우 얕은 수심과 연안에 위치한 다수의 크고 작은 도서의 존재로 인해 동해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유엔군 활동이 전개되었다.<sup>4)</sup> 먼저 서해 이북지역에 위치한 도서들은 한국전쟁 후반기,

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September, 1967), p.4.

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IX; Malcolm Muir Jr., “Sea Power on Call: Fleet Operations, June 1952-July 1953”,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p.348.

3) 필드는 한국전쟁기 해군작전과 관련한 기념비적 연구에서 2년여의 후반기 해상작전을 ‘2년 더(Two More Years)’라는 제목의 1개 장(Chapter)에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Chapter XII.

유엔군의 특수작전을 위한 핵심기지로 활용되었다. 특히 레오파드(Leopard) 및 울팩(Wolfpack) 등으로 알려진 반공 유격부대(Anti-Communist Guerrilla)의 활동 대부분이 이 지역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sup>5)</sup> 또한 공산군의 대단위 해상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유엔 측의 방어 작전 역시 이 지역 도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51년 11월부터 1952년 초까지, 유엔군이 서해 이북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던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공산 측의 대대적인 해상 공세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공세에 맞서, 유엔 측은 도서 방어 작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작전을 전개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도서 중 상당수는 판도라 작전(Operation PANDORA)이라 명명되었던, 한국전쟁기 최후의 해상철수작전의 주 무대이기도 하였다. 정전협정상의 합의에 따라 유엔 측은 서해 이북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던 19개 도서로부터 완전 철수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발효일을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철수대상 도서에 위치한 45,000명에 이르는 인원과 2,300여 톤에 이르는 물자를 남측 영역으로 완전 철수하는 대규모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sup>6)</sup>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유엔군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당시 서해전역에서 활동하던 해군의 작전기록이 필수적으로

4)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anuary-June 1951,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6 July, 1951, Part I: Historical Survey, para.23; Norman Bartlett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p.127.

5) 반공 유격부대의 영문 명칭은 1952년 10월까지는 반공 게릴라(Anti-Communist Guerrilla)로 통칭 되다가, 이후 유격부대의 조직 개편과 함께 파티잔(Partisan)으로 통일되었다. 서해지역 영연방해군의 경우 그들의 작전일지 및 정기보고서에 유격부대를 통상 전자로 기술하였기에 본고에서도 영문명에 한해 Anti-Communist Guerrilla로 표기한다. 한글 명칭의 경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내의 명명법에 따라 반공 유격부대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6)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2.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선 반공 유격부대의 경우 이들의 작전활동 대부분이 유엔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기에, 이들의 활동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해군 측 작전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서방어 작전과 판도라 작전의 경우도 두 작전 모두 유엔 해군의 총괄책임하에 수행되었던 만큼, 이들 작전의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해당시기 서해전역에서 해군작전을 담당했던 함정의 작전기록 활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북위 37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전역 내 유엔 해군작전은 유엔군사령관(Supreme Commander, UN Forces) 예하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의 지휘를 받는 제95.1기동전대(Task Group 95.1)에 의해 수행되었다.<sup>7)</sup> 영국 해군제독을 기동전대 사령관으로 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해군이 여기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한국해군 소속의 초계함 일부 역시 1950년 7월 말부터 서해작전에 합류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sup>8)</sup> 제95.1기동전대의 구성이 외형적으로는 다국적군의 형태를 띠었으나 전체 전력의 상당부분이 당시 홍콩에 위치했던 극동해군기지(Far East Station)로부터 파견된 영국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서해 해군작전의 대부분은 영국군 지휘관들의 지휘통제하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중 생산된 서해전역 작전기록의 대부분이 영국 해군에 의해 기록, 수집 및 보관되어 왔다. 대체로 미군 측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던 여타

7) 1950년 7월 3일 이후 북위 37도선 이북에 위치한 동해전역의 경우 미 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95.2기동전대(Task Group 95.2)가, 37도선 이남에 위치한 해역의 경우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95.7기동전대(Task Group 95.7)가 작전을 담당하였다. Thomas J. Cutler,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 p.22.

8) 위의 책.;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33.

유엔군 활동과는 달리, 서해전역 내 유엔군의 작전활동에 대한 기술은 영국 측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한국전쟁 전반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전술한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이 그들의 한국전쟁기 해군작전을 ‘가장 영국답지 않은 전쟁(a most un-English war)’이라 인식하면서 해당 해전사 연구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sup>9)</sup> 그나마 1967년 영국 해군 역사기록단(Naval Historical Branch)에 의해 서해 해군작전 전반에 대한 종합연구(full-scale study)가 내부 기록용으로 발간되었으나, 이 역시도 여타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반기 작전활동 기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sup>10)</sup> 그나마 제95.1기 동전대의 작전활동 중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활약상이 후속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공산군 전투기와의 교전이나 본토 내 표적에 대한 공격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서해 해상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sup>11)</sup>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도서방어 작전, 그리고 판도라 작

9) Edward C. Meyers, *Thunder in the Morning Calm: The Royal Canadian Navy in Korea 1950-1955*(St. Catharines, Ontario: Vanwell Publishing Limited, 1992), p.152.

10) 이 연구 역시 2년여에 이르는 후반기 해군작전을 설명하기 위해 총 12개의 장(Chapter) 중 단 4개의 장만 할애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기 해상작전을 크게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2년여의 기간을 마지막 6단계로 분류하였다. 영국 측 연구자들에 의해 해당 작전기간의 특징은 ‘장기화된 휴전협정, 해상에서의 정태적인 전쟁(static warfare on shore)’이라 명명되어 있다.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11)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작전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Richard P. Hallion, *The Naval Air War in Korea*(Baltimore, Maryland: Th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mpany of America, 1986); John R. P. Lansdown, *With the Carriers in Korea: The Sea and Air War in SE Asia, 1950-1953*(Wilmslow, Cheshire: Crecy Publishing Limited, 1997); Brian Cull and Dennis Newton, *With the Yanks in Korea*(London: Grub Street, 2000); Graham Thomas, *Furies and Fireflies over Korea: The Story of the Men of the Fleet Air Arm, RAF and Commonwealth Who*

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영국 해군이 한국전쟁이 생산 및 수집한 작전기록에 대한 발굴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전쟁 중 생산된 제95.1기동전대의 작전기록 대다수는 비밀 해제되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Kew)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서해전역 내 유엔 측 활동상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군작전 관련 유엔 지휘부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과 서해지역 사령부의 작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95.1기동전대장 및 그의 참모들(Staff Officers)이 작성한 6개월 단위 중기 보고서(Report of Experience)와 월별 보고서인 작전경과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가 유용하다.<sup>12)</sup> 하지만 이 자료에는 매일 진행된 서해전역에서의 작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상세한 작전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제95.1기동전대 소속 함정들의 작전일지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특히 주로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 주둔했던 기동전대장을 대신해 해상항공작전과 봉쇄작전 각각에 대한 현장지휘를 각각 전담했던 두 명의 기동분대장(Commander, Task Element)의 작전경과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가 함정들의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정리해두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sup>13)</sup> 여기에 더해 함재기 조종사들의 표적정보 선정 및 공격결과와 관련한 정보 역시 연안지역 및 내륙에서의 유엔군 활동과 공산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항공모함의 작전경과보고서 내 작전결과보고서(Debriefing

---

*Defended South Korea, 1950-1953*(London: Grub Street, 2004); David Hobbs, "British Commonwealth Carrie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Air & Space Power Journal*, 18, 4; ProQuest(Winter 2004).

12) 상기 언급된 자료들은 ADM 1-Correspondence and Papers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함정들의 작전기록과 관련해서는 ADM116-Record Office: Cases 내의 자료를 참고할 것.

Report)와 항공연락장교(Air Liaison Officer)가 작성한 전쟁일지(War Diary)를 참고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sup>14)</sup> 이러한 1차 자료에 충실히 기반한다면 전술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 해군의 한국전쟁기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그동안 그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사실상 잊힌 서해전역 내 주요 활동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고, 미국 측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한 채 논의되어 왔던 현행 유엔군 작전연구 정황에 확장성을 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기술 가능한 주요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각 분야별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영국 측 자료가 해당연구 발전에 기여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 2.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기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특수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싱글라브(John K. Singlaub) 장군의 말처럼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활동 중 반공 유격부대 활동은 ‘그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the most unknown part of it)’일 것이다.<sup>15)</sup> 실제 한국

14) 함재기의 작전경과보고서는 ADM 116-Record Office: Cases 내의 자료를, 그리고 항공연락장교의 자료는 WO 281-British Commonwealth Division of United Nations Force: War Diaries, Korean War를 참고할 것. 미 해병대 소속 경항공모함의 작전보고서(USMC Carrier Action Report)는 디지털화 되어 미국의 인터넷 문서보관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rchive.org/details/KoreanCombatActionReports>를 참고할 것.

15) Ben S.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전쟁 후반부 2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최대 2만여 명에 이르는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활발한 작전활동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상은 한국사회에 널리 소개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격부대 활동은 으레 공산당의 빨치산 활동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sup>16)</sup>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은 대부분 서해 38도선 인근 및 그 이북에 위치한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대체로 전전(戰前)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되어 왔던 반공주의 청년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각자의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지속되었던 북한 내 음성적인 반공주의 운동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진행된 유엔군의 북진과 함께 급격히 양성화(陽性化) 되었다. 하지만 1950년 말,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이들의 북한 내 입지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반공인사 중 상당수가 남진하는 중공군을 피해 서해 인근의 크고 작은 도서로 피난하였다. 그리고 피난 후에도 같은 고향 출신 반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체 조직을 구성하고 공산군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을 지속하였다.<sup>17)</sup> 그러던 중 1951년 3월, 이들의 활약상을 전해들은 미8군(US Eighth Army)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군 예하의 유격부대로 재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2년여에 이르는 시간동안 이들 반공 유격부대는 적군에 대한 기습 및 정보수집, 방해공작 등을 수행하며 활발한 작전활동을 지속하였다.<sup>18)</sup>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한국전쟁기 활동상은 관련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는 우선적으로

---

Brassey's, INC., 2003), p.xi.

16)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년 10월), p.140.

17) 반공 유격부대 조직 각각의 연원 및 초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제 5장을 참조할 것.

18)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p.1.



반공 유격부대 활동 자체가 가진 특수성에 기인한다. 당시 레오파드, 울팩과 같은 영문 코드명으로 불렸던 이들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되었던 비밀부대였다. 작전기간 동안 반공 유격부대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었기에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식기록들은 독점적으로 미군에 의해 수집 및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당시 미군에 의해 기록된 1차 자료 자체가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유격부대원 대다수는 당시 자발적으로 미군 지휘하에 편입한 비정규군(irregular) 신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전기간 동안 유격부대원들은 미군 고문관의 느슨한 통제와 감시하에 작전활동을 폈다. 대원에 대한 인명부(lists)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북한 출신 비정규군에 대한 미군 측의 불신으로 인해 미 고문관이 부대원의 작전에 동행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sup>19)</sup> 따라서 미군에 의해 수집된 관련 자료들의 대부분은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원들의 첩보수집보고서(Intelligence Report)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sup>20)</sup>

물론 미군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수집한 기록물 중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1954년 3월 한국전쟁기 게릴라 활동의 특징(feature)에 대한 구술자료(narrative account)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미 극동육군(US Army Forces, Far East) 전사과견대(Military History Detachment)의 보고서이다.<sup>21)</sup> 델리(Arthur S. Daley) 중령과 모스맨(B. C. Mossman)

19) 미군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군 장교가 유격 작전에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5월 1일부터이며, 그 이전 유격부대 활동은 모두 미군의 감시 및 동행 없이 수행되었다.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Appendix E: CHRONOLOGY OF PARTISAN CAMPAIGN, p.156. 미군 고문관의 반공 유격부대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대해서는 Malcom, *White Tigers*, pp.2-3을 참고할 것.

20)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p.14-15.

소령에 의해 작성된 이 자료는, 유격부대원들의 반공 활동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뿐 아니라, 당시 백령도와 그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던 몇몇 반공 유격부대 부대장과 대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담고 있어 당시 유격부대원의 작전 동기와 열악한 작전환경, 그리고 조직 내 존재하는 부대원 간의 갈등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1956년 미 극동육군의 지원하에, 존스홉킨스 대학(The Johns Hopkins University)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에 의해 작성된 분석보고서 역시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sup>22)</sup>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방대한 미군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 활동 결과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 육군 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주도하에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미군 측 담당자로서 참여했던 참전 장교들의 경험을 구술자료의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도 존재한다.<sup>23)</sup> 고위간부 구술사프로그램(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이라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미 육군은 반공 유격부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밴더풀(Jay D. Vanderpool) 중령 등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자료를 남겼다. 이들 자료는 지휘관급 시각에서 바라보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미군 측 자료들은 그간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와 관련해 사실상 ‘알려진’ 유일한 객관적 자료라는 이유로 해당 연구자들로부터 일종의 바이블(Bible)처럼 간주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

21)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22)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23) USA Military History Institute, Charisle, Pensilvannia, “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 (1983), (1985).

반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비밀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 이후 등장한 미국과 한국 내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이들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미군 장교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상이 소개되기 시작했다.<sup>24)</sup> 이러한 회고록들은 전술한 미군 측 보고서 및 기록물의 내용에 기반해 개인적인 경험담과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사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군 기관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육군본부 군사연구실과 군사편찬연구소 주도하에 발간된 몇몇 반공 유격부대 관련 저작들 역시도 상당부분 앞서 언급한 미국 측의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있다.<sup>25)</sup> 물론 두 군기관의 연구 결과가 기존의 미국 측 입장을 단순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3년에 발간한 저작의 경우 미국 측 자료뿐만 아니라 일부 한국군 내 공식기록과 유격대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대다수의 기록물 및 책자까지 포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과거를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sup>26)</sup>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는 단연코 미국 측 자료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저자 역시 인정하듯, 연구에 활용된 국내 자료들이 대부분 유격

24)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Malcom, *White Tigers*;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An Account of the Military Career of Colonel Donald A. Seibert, USA Ret.* (Victoria, BC, Canada: Trafford Publishing, 2010);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ys", US Army, (Nov. 1984).

2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6) 연구를 위해 활용된 국내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더욱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pp.141-153.

부대원들의 기억에 의존해 후술된 회고록이거나 본인들의 행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간된 기념출판물의 형태여서 자료의 신뢰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sup>27)</sup> 이로 인해 국내 자료의 대부분은 실상 미국 측 자료의 기술 내용을 보완하거나 교차 검증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군사편찬연구소의 저작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 전술한 미군 측 연구자료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측 기록물들이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분히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당시 유격부대를 조직하고 운용했던 미군의 감시 능력상의 한계와 특수전 활동 특유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이들 유격부대가 수행한 다양한 임무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서해 도서 및 근해지역에서 유엔 해군과의 직·간접적 관계하에 수행된 작전활동들은 사실상 미 육군의 공식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격부대의 활동에 있어 유엔해군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다는 점이다. 미군의 기록에 근거한 반공 유격부대 연구의 한계는, 앞서 언급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다.

“이 연구는 파티잔(Partisan) [반공 유격부대] 들이 활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한 정보제공 [항공 폭격 및 함포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 제공과 유엔 지휘부가 레이더와 기타 장비들을 설치·운용하였던 도서에 대한 방어병력(a defensive force)으로서의 역할이 지니는 가치(value)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 이러한 두 가지 기능들— 전선 후방에서의 정보활동 및 도서에 대한 방어—은 물론 파티잔 활동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파티잔의 기여도(contribution)라는 측면에서 [파티잔 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이들 두 부분에 있을 것이다.”<sup>28)</sup>

27) 앞의 책.

28)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55.

위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 미국 측의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은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해 유엔 군함 및 함재기 작전활동을 위한 핵심 정보 공급자이자 유엔군의 도서방어 작전 수행에 있어 주요 전력으로서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은, 미 육군의 자료에 기반해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공급하는 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해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들을 활용해 도서방어 작전을 진행했던 해군 측의 자료 없이는 연구의 객관성과 구체성 모두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유격부대의 해군작전 지원에 대한 평가는 제95.1기동전대장 및 그 예하 함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왔다. 가령 “[해군 작전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정보의 원천인 이 조직[레오파드 부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적(essential)”이라는 한 함장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상에는 정보공급자로서 반공 유격부대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다.<sup>29)</sup> 또한 여기에는 “초기에는 이들[반공 유격부대원]로부터 며칠 늦은 정보를 받았으나, 버크 소령[Major William A. Burke, 레오파드 부대 사령관]이 백령도에 재임한 이래 [정보가] 매우 적기에 (timely)에 공급되고 있다”와 같이 유격부대의 정보공급 활동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사실은 우선적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한국전쟁기 서해전역 유엔 해군작전 지원’이라는 종전에 검토된 바 없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해군 작전기록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킨다.

2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HMS *Belfast*, 4 May 1951, para.16.

30)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p.VI-3.

영국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및 분석되어야 할 유격부대의 활동은 비단 해군작전 지원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공 유격부대와 서해전역 유엔 해군과의 관계가 단순한 편리공생(片利共生) 관계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과는 반대로 유엔 해군에 의한 유격부대 작전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유격부대의 기지가 서해 이북지역 도서 내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들의 작전활동에 있어 해군의 협조 및 지원 역시 필수적이었다. 유격부대원들의 단순한 해상이동에 대한 관리와 신원확인, 그리고 이들이 수행한 상륙작전 지원 및 지상 작전 중 직면한 위급상황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Emergency Call) 임무까지, 실상 서해전역 및 인접 본토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유격활동이 유엔 해군의 긴밀한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sup>31)</sup> 따라서 유격부대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유엔 해군과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며, 해군과의 협력관계 변화에 따라 유격부대 활동의 양상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sup>32)</sup>

하지만 미군 측 자료에 기반한 기존 연구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근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군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없이, 유격대원들의 작전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정량적 성과 - 적군의 인명피해, 파괴된 물자 수량 등 - 에 입각해 작전 활동을 분석·평가해왔다. 즉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에만 집중한 지극히 불균형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던 것이다. 유엔 해군의 유격부대 지원활동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도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 연

31) 반공 게릴라와 서해상의 유엔 해군 간 구축된 세부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Inseung Kim,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May 2018), pp.115-132 참조.

32) 실제 레오파드 부대 창설 초기, 서해 유엔해군에게 먼저 협조시스템 구축관련 회의를 제안한 쪽도 미8군 측이었다. U.S. Army Forces, Far East, 8086<sup>th</sup>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50.

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반공 유격부대와 유엔해군 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발전 과정이 1951년 초 제95.12기동분대장들의 작전경과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만큼, 이 자료에 기초하여 이후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33)</sup>

마지막으로 영국 해군의 자료는 상당부분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기억에 의존해 후술된 그들의 활동기록들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전쟁기 유격부대원의 증언자료에 대한 조성훈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 소개된 유격부대원들의 활약상은 전과가 과장되거나 과오가 누락되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sup>34)</sup>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문서를 제외하고 마땅히 교차검증이 가능한 사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전술했듯,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후술된 기록 대부분이 시종일관 이들의 전공과 숭고한 투쟁정신을 강조하며, 작전 중 행한 과오나 일부 대원들의 변절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국 해군 측 자료에 근거하면, 유격부대원들의 작전활동은 1951년 7월, 정전협정이 시작된 이래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년 말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실제, 개성에서 정전협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한 유격부대원들의 급격한 사기저하로 인해 우선적으로 유격부대원들이 유엔 해군 측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약탈 활동이 급증하였으며, 이중첩자의 존재로 인해 유엔 해군작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제95.1기동전대장이었던 몬크리에프 제독

33) 특히 ADM116-Record Office: Cases내의 벨파스트함(HMS *Belfast*), 케냐함(HMS *Kenya*), 실론함(HMS *Ceylon*)의 작전경과 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를 참고할 것.

34)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pp.154-167.

(Rear-Admiral A. Scott-Moncrieff)은 1951년 11월 중반, “레오 파드의 활동이 최악의 상황(lowest ebb)에 이르렀다”며 그의 예하 함정들에게 가급적이면 반공 유격부대와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까지 하였다.<sup>35)</sup> 이처럼, 영국 해군의 기록을 활용하면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단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 해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기록된 자서전상에는 작전실시 일자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오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백마부대원들(동키-15)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작전활동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제2차 신미도 공격작전의 경우, 회고록상에는 작전일자가 1951년 8월 26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해당 작전을 직접 지원했던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에는 시행일을 10월 9일로 기록하고 있다.<sup>36)</sup> 또한, 미 극동사령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가도에 위치한 중공군을 생포한 날짜에 대해 백마부대 측은 1951년 11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당시 공산군 포로의 호송을 지원했던 영국 해군함정의 작전기록에 따르면 이 날짜는 동년 동월 28일이었다.<sup>37)</sup>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의 경우 각 기동분대사령관이 남긴 작전경과보고서 내 사건요약일지(Chronological Summary of Event)를 통해 상당부분 비교분석이 가능한 만큼, 관련 연구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

35)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4 to 24 October 1951, HMS *Belfast*, CTG 95.1's Comments, 16 November 1951.

36)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북위 40 도선: 유격백마부대실전기』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1979), p.205.; ADM 116/622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 No.42, 29 September to 16 October,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Force. FO2FE/2960/11, 16 October, 1951, p.2.

37)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북위 40 도선: 유격백마부대실전기』, pp.253-260;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199.



다.38)

이와 같이 중전의 기록들에 더해, 교차검증을 목적으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들도 함께 검토된다면 기존 반공 유격부대 연구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3. 유엔군의 서해 도서방어 작전 연구

1951년 11월 6일, 철산반도 남쪽에 위치한 가도, 탄도에 대한 공산군의 상륙공격 및 대화도에 대한 공중폭격이 기습적으로 감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도와 탄도가 공산군에게 점령되고 대화도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대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sup>39)</sup> 당시 서해전역 유엔 해군 지휘부는 이것이 단발성 공격이라 판단하고 경계태세 강화를 지속하지 않았다.<sup>40)</sup> 하지만 이는 유엔군의 예상과는 달리, 당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해전역 내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공산측 해상 공세작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1951년 11월 30일 대화도에 대한 공산군의 대단위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이 감행된 데 이어 동년 12월 중순부터 황해도 연안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공세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제95.1기동전대는 백령도, 연평도, 초도, 석도 등 몇몇 주요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북부 지역 내 도서를 공산군에게 빼앗기고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급작스런 작전환경의 변화는 유엔 해군의 최우선적인 임무 조차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실제 1951년 12월 2일, 서해 주요 도

38) 이 자료들은 대부분 ADM116-Record Office: Cases에서 찾을 수 있다.

3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p.213.

40)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3 November to 3 December 1951, Enclosure to the Commanding Officer, HMS *Ceylon*'s letter 2887/01.

서에 대한 방어가 그 어떠한 임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한 유엔군 지휘부의 명령이 제95.1기동전대에 하달되었다.<sup>41)</sup> 이들은 이후 약 4개월 간 공산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맞서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을 위해 진력을 다했으며, 공산군의 주요 도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1952년 3월 중반 이후에도 약 8개월간 도서방어 준비태세를 지속하였다. 당시 도서방어 작전을 총괄했던 몬크리에프 제독의 말처럼, 서해 유엔 해군은 공산군의 도서 탈환작전의 시작과 함께 ‘가장 위태로운 시기(the most critical time)’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sup>42)</sup>

당시 유엔 해군이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가용전력을 투입했던 이유는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의 확보가 유엔군의 전장수행에 있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 말, 이곳 도서들은 한국전쟁기 유엔군 특수작전 활동의 핵심기지로 활용되었다. 전술했던 반공 유격부대 및 CIA를 비롯한 여러 유엔군 소속 요원들이 서해상의 도서를 기반으로 비밀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초도와 백령도 등 주요 도서에는 미 공군작전에 필수적인 레이더 시설이 설치·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해전역 내 도서의 가치는 아래의 미 제5공군 정보보고서에 보다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서해상의] 모든 도서는 본토로의 정보작전(intelligence) 침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중 많은 도서가 적군에 대한 방해공작(sabotage)의 시작점이자 저항활동(resistance movements)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된다. ... 이 도서들은 또한 아군 선박에게 있어 적군의 해안을 통한 물자수송을 저지할 수 있는 기지일 뿐 아니라, 곤경에 빠진(in distress) 아군 조종사의 비상착륙, 탈출 및 구조활동을 위한 기반(basic necessity)을 제공한다. ... 뿐만 아니라 초도, 백령도, 연평도에

41)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pp. 13-14; 유엔 지휘부로부터 하달된 서신 전문은 이 보고서의 ‘Appendix 1’을 참고할 것.

42) ADM 116/6219, HMS *Mounts Bay*—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9 December 1951, HMS *Mounts Bay*, 10 December 1951, CTG 95.1’s Comments, 21 December 1951.

는 아군 전투기들이 청천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후 기지로 귀환하는 길을 안내하는 방향지시국(D/F Station)이 있으며, 대청도와 덕적도에는 아군 폭격기에게 북한 내 표적을 안내하는 쇼란 비콘(Shoran Beacon)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초도와 백령도에는 조기경보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sup>43)</sup>

38선을 중심으로 지구전(War of Attrition)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산군의 후방교란과 적군 핵심시설 타격을 위해 특수작전과 공중 폭격작전의 중요성이 점증하던 시기였기에, 이 두 작전 수행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서해지역 도서는 그 존재자체만으로 유엔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던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도서의 소유권 문제가 정전협정의 주요 이슈가 되고, 동시에 공산군의 도서 탈환을 위한 공세가 시작되자 유엔군에 있어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바틀렛(Norman Bartlett)의 주장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도서를 둘러싼 공방이 당시 지지부진한 지상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될(assumed)” 정도였다.<sup>45)</sup>

하지만 한국전쟁사 연구에 있어 도서방어 작전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공산 측 공세작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공식 역사서에 언급된 일부 정보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학자들의 후속 연구로 인해 일정부분 퍼즐이 맞춰진 상황이다.<sup>46)</sup> 문제

43) Lawrence V. Schuetta,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4*(Maxwell AFB, Alabama: Air University, Aerospace Studies Institute, 1964), pp.91-92.

44) ADM 1/23906, Korean Naval Operations-9 January to 8 February 1952,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4/FO2FE2/1209/1, 13 February 1952, pp. 1-2.

45) Norman Bartlett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p.129.

46) 도서분쟁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된 ‘지역홍정’ 문제가 주원인이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휴전협정 과정에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북지역의 섬들이 개성지역 확보를 위한 유엔 측의 ‘지역홍정’의 대상

는 해당 전투의 전개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대다수 연구들이 공산 측의 공세가 초기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도서지역 방어를 위한 유엔군 측 준비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양측 간의 공방(攻防)이 정전협정의 전개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등, 이 해상 전투활동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만족할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는 단순히 ‘공산군이 11월 한 달 동안 ... 14개 섬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식의,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단편적인 정보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sup>47)</sup> 단순히 한국전쟁의 잊힌 단면을 재조명하는 차원을 넘어, 후반기 유엔군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였던 서해 도서방어 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쟁기에 수행된 도서방어 작전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이유는, 전술한 반공 유격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도서방어 작전의 책임자였던 제95.1기동전대의 자료를 배제한 채 미국과 한국 해군 및 해병대, 그리고 일부 중국 측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해상전투의 상세한 과정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1951년 12월 9일, 유엔군 지휘부는 당시 육군과 해군 사이에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 갈등이 있던 도서방어 작전의 최종 책임이 유엔

---

이 됨에 따라, 이 흥정의 명분을 없앨 목적으로 공산 측에 의해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측 기록은,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p.213-215.; 한국 측 보완연구는 주로 휴전협정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월), pp.94-97.;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207-215 등이 있음.

47)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군대사연구』 Vol.62, (2012년 9월), p.150. 이는 중국군사과학원의 공식 역사서에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215.

해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sup>48)</sup> 이는 곧 서해 방어 작전의 책임이 제95.1기동전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군 제독의 지휘하에, 서해전역 내 위치한 모든 유엔 해군 소속 군함들과, 한국 및 미군 해병부대, 그리고 반공 유격부대로 구성된 도서방어병력(Garrison Forces)이 함께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주목할 점은 당시 방어병력으로 파견된 미군 및 한국 해병전력이 주로 백령도, 초도, 석도, 연평도, 덕적도와 같이 본토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주요 도서에만 파견되었고, 실제 공산군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었던 연안(沿岸)지역의 도서방어는 대체로 반공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sup>49)</sup> 당시 도서방어 작전의 긴급성으로 인해 연안지역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 및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정보들은 대부분 유격부대원들을 통해 유엔 해군함정들에 직접 보고되었다. 신속한 함포사격 및 공중공격 지원을 위함이었다. 문제는 당시 유격부대원들이 도서방어 작전과 관련해 긴급히 유엔 해군에 타전한 정보 대부분이 유격부대 사령부를 거쳐 상부로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50)</sup> 따라서 공산군의 연안 지역 공세활동 및 이에 대한 유엔군의 대응과 관련한 기록들은 실상 인근 해안에 상주하며 방어작전을 지휘했던 유엔 해군 함정의 작전일지에 의해서만 상세히 기술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48)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p.15; 도서방어 작전의 책임문제와 관련한 유엔해군과 육군 지휘부 단의 갈등문제는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137 참조.

49) 당시 방어준비태세와 관련한 상세기록은 HMS *Mounts Bay*의 다음 보고서를 참조할 것. ADM 116/6222, HMS *Mounts Bay*, CTE 95.12's OP-PLAN 12-52, 'Naval Anti-Invasion Measures for West Coast Islands', 21 December 1951.

50) USS *Bairoko* (CVE-115), Action Report 9 April through 18 April 1952, 24 April 1952, p. 12; Inseung Kim,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p.244–245.

도서탈환 작전의 경우 당시 작전에 직접 가담했던 방어병력들의 보고에 의해 더욱 상세한 활동기록이 남겨지기도 하였다.<sup>51)</sup>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기에 관련연구의 중심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영국 해군의 기록을 보완하거나 교차 검증하는 정도에서 그 유용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이 한국전쟁기 도서방어 작전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이 해상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개전 초기부터 1951년 10월 사이,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점령관계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이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37도선 이남지역의 도서점령과 관련한 기록은 한국 해군의 역사서에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있다.<sup>52)</sup> 하지만 제 95.1기동전대가 전담했던 37도 이북지역 내 활동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북지역 도서에 대한 유엔군의 본격적인 점령이 반공 유격부대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된 만큼, 영국 해군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술한 미국 및 한국의 유격부대 관련 기록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서방어 작전 시작 이전, 서해전역 내 도서에 대한 점령관계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엔군에게 있어 서해전역에 위치한 도서가 지니는 가치의 변화과정에 대해 연구가 가능하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서해 도서는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1950년 말, 중공군의 개입

51) 대표적인 예가 1952년 초 한국군 해병대에 의해 작전이 시도되었던 일명 ‘호도 작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1』(해병대사령부, 1962), pp.246-250 참조.

52)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계룡대:해군본부, 2012), pp.143-149, 169-191.

으로 유엔군이 진남포와 인천에서 철수작전을 준비할 때, 유엔 지휘부는 서북지역에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서 대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였다.<sup>53)</sup> 하지만 이후 서북지역 도서가 유엔군의 다양한 작전활동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정전협정 시작과 공산군의 도서 탈환 작전으로 인해 유엔군에 있어 이 지역 도서의 전략적 가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서해전역 내 도서가 지니는 가치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한 유엔군 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와도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이 연구는 전술한 도서 점령관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검토할 경우 그간 정전협상의 결과물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던 도서공방전의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 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산군과 서해상의 유엔군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영국 해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산군의 도서 탈환작전의 시작과 유엔 측의 대응, 그리고 이후 분쟁양상의 변화과정 모두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술한 한국 및 미국 해병부대의 도서방어 작전 관련 기록들과, 미군 측에 의해 수집된 유격부대원들의 증언내용이 더해진다면 해당 연구의 구체성과 현장감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sup>54)</sup>

53)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23 December 1951, p. 7.

54) 미국 해병대의 도서방어 작전과 관한 기록은 Lieutenant Colonel Pat Meid, USMCR and Major James M. Yingling, USMC,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ume V-Operations in West Korea*(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1972), pp.53-60을 참조할 것; 공산 측의 도서탈환 공세와 관련한 반공 유격부원들의 인터뷰는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art IV. Narrative of Partisan Leaders를 참조

#### 4. 유엔군의 서해 해상철수 작전 연구

1953년 6월 초, 유엔 지상군이 동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산군의 하계공세를 맞아 방어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기, 서해상에서는 판도라 작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작전이 시작되었다.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유엔군 점령 도서로부터의 철수작전이 그것이다.

1952년 2월 3일 정전협정 제7차 참모회의(Meeting of Staff Officer)를 통해 최종 조율된 양측 간의 해양 영토분개선 합의결과에 따라, 유엔군은 정전협정 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5개 섬을 제외한 황해와 경기도 경계선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서로부터 철수할 것을 약속하였다.<sup>55)</sup> 이에 따라 유엔군은 정전 시 기존에 점령하고 있던 초도, 석도 등 핵심 도서와 17개의 작은 섬들로부터 완전 철수해야 했다.<sup>56)</sup> 정전 전까지 유엔군이 점유하고 있는 서북지역 도서에 대한 점령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해당 도서로부터의 철수가 한국전쟁기 마지막에 수행되어야 할 서해 유엔 해군의 필수작전으로 사실상 결정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상 진행상의 난항으로 인해 한동안 판도라 작전의 시행은 무기한 연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전쟁포로 송환문제와 관련한 양측 간의 이견으로 인해 1952년 10월 8일 이후로 정전협정이 무기휴회 상태에 있었기에 유엔 지휘부에게도 서북지역 도서로부터의 철수는 한동안 관심 밖의 문제로 여겨졌다.<sup>57)</sup>

---

할 것. 일부 미국의 반공유격부대 관련 저작에도 서해지역 도서분쟁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p.124-132을 참고할 것.

55)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3 February 1952, p.7.

56)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2.



하지만 1953년 4월 20일,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 불리던 상병(傷病)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을 계기로 정전협상 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판도라 작전의 시행 역시 급박해지기 시작했다.<sup>58)</sup>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전인 6월 초부터 일부 인원에 대한 이동을 시작으로 예비단계 철수(Preliminary Evacuation)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기 서해상에서 진행된 유엔 해군의 사실상 마지막 작전이 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판도라 작전은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수행된 해상 작전들 중 가장 긴박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된 중요작전이였다. 전술했듯 한국전쟁 후반기 동안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해 점령되어 특수작전과 항공 레이더 기지 등으로 활용되었다. 거기에 다수의 피난민과 도서방어 병력들 역시 주요 도서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철수되어야 할 인원 및 물자의 규모가 실로 막대하였다. 유엔해군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 작전을 통해 45,000명에 이르는 인원과 2,300톤에 이르는 장비에 대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했다.<sup>59)</sup>

문제는 정전협정 서명일로부터 불과 10일 이내에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어야 했다는 점이다.<sup>60)</sup> 특히 1953년 6월 5일, 정전협정상의 추가 협의에 따라 “협정 체결 이후 1950년 6월 25일 이전 휴전선 이남에 거주하지 않았던 민간인(civilian)의 유엔 측 영역으로의 이동(cross) 금지” 명령이 하달되면서 작전시행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sup>61)</sup> 이 명령에 따르면 반공 유격부대와 그 가족, 그리고 피난

57)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pp.358-359.

58) 앞의 책, p.448.

59)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p.2.

60) 1952년 2월 협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철수가 5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명시되었으나, 1953년 7월 최종 협의과정에서 철수가 1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24 July to 12 August 1953, HMS *Birmingham*, 12 August 1953, para.3.

6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266.

민 등 개전(開戰) 이전 북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정전협정 체결 이전 반드시 남측으로의 이동을 끝내야 했다. 특히 강제적 철수에 대한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저항으로 인해 기한 내에 철수작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산 측과의 정전협정 위반관련 시비(是非), 나아가 갈등의 재발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었던 만큼 완벽한 작전수행의 필요성이 그 어떠한 해상작전보다 컸다.<sup>62)</sup>

이처럼 판도라 작전은 한국전쟁기 서해상에서 시행된 마지막 대규모 작전이라는 상징성과, 지상 작전의 영토분계선 설정 과정과는 달리 전투의 결과가 아닌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유엔군이 점령한 영토를 공산 측에 평화롭게 이양했다는 그 이행방식상의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해군의 공식 역사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수송 규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만 담고 있어 서해전역에서 진행된 해상철수 작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sup>63)</sup> 그간 관련 학계와 대중들로부터 사실상 잊힌, 유엔군의 한국전쟁기 마지막 해상작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판도라 작전은 전술한 도서방어 작전과 마찬가지로 제95.1기동전대의 총 책임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전술한 연구 주제들처럼,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후반기 서해작전에 대한 학계의 무관심과 미군 측 자료에 의존하여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약상을 설명하려는

62) 실제 당시 유엔해군 측은 반공 유격대원이 철수에 저항하며 ‘무장 범죄집단(Armed Bandits)’이 되거나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저항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우려하였다.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para.11; 이러한 우려는 미군 반공유격대 사령부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은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p.116을 참고할 것.

63)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449; 한국 해군과 미 해병대가 발간한 역사서에는 판도라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정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된 연구자체가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판도라 작전은 작전수행 기간상의 제한과 작전 성공의 필수성,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휴전협정에서 해상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논쟁이 종결되고 유엔군의 서북지역 도서로부터의 철수가 결정된 1952년 2월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했다. 그리고 정전협정 타결이 긴박해진 1953년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정전협정 체결이 발표되기 이전인 6월 초부터 일부 유격부대원 및 피난민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판도라 작전의 전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시점을 1951년 말, 유엔군이 점령한 도서의 지위와 관련한 정전협정상 의 논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전협정 이후 철수작전이 공식 완료된 1953년 8월 초까지 확장해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정전협정의 진행 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당 작전을 계획수립 단계, 그리고 계획의 시행단계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지어 도서로부터의 철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판도라 작전의 계획수립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유엔군이 점령한 도서의 지위와 관련한 정전협상상의 논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논쟁의 결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1952년 2월 3일, 유엔군이 정전과 동시에 공산군 측에 양도해야 할 도서 목록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51년 10월 25일 있었던 2번째 아젠다(Agenda 2)에 대한 제7차 본회의부터 1952년 2월 3일 합의된 3번째 아젠다(Agenda 3)에 대한 연락장교 회의 사이의 정전협상 전문의 내용이 도서 지위와 관련한 이슈의 결정과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sup>64)</sup>

이후 진행된 구체적인 철수 준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연구는 온전

64) 정전협정 관련 전문은 국사편찬연구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휴전회담회의록을 참고할 것.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pn>(검색일: 2018년 8월 27일).

히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판도라 작전은 이 정전협상 결과의 필연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산물이었다. 대대적인 도서 철수가 기존 유엔 해군의 주요 임무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작전일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실수 없이 완료되어야 했기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제95.1기동전대사령관인 몬크리에프 제독의 지시하에 1952년 2월 중순부터 철수관련 사전조사 및 초기 계획수립이 시작되었다. 초기 계획은 실론함(HMS *Ceylon*)의 함장이자 95.12기동분대장(Commander, Task Element 95.12)이었던 스링(Captain G. A. Thring)의 주도하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시기 실론함의 작전경과보고서를 참고하면 초기 작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철수작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동년 3월 말에 판도라 작전이라 명명된 철수계획 초안이 마련된 만큼, 1952년 2월과 3월의 작전기록이 계획수립단계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sup>65)</sup>

다음으로 판도라 작전계획의 시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1953년 3월 말, 정전협상의 전환점이 된 상병포로 송환 논의의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상 판도라 작전의 초안이 완성된 후 약 1년간, 해상철수에 관한 이슈는 단 한 차례도 서해 유엔 해군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1952년 말까지 공산군의 연안 지역 도서에 대한 공세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유엔 해군이 도서방어 태세 유지에 집중해야 했을 뿐 아니라, 유엔 지휘부가 조기 정전협상 타결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기에 이후 판도라 작전의 진행은 사실상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계획은

---

65)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st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para.11; ADM 1/23915,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50,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16 March to 7 April 1952, p.7.

1952년 6월 말 초도 지역에 추가 인원 및 레이더 장비가 배치됨에 따라 한 차례 부분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953년 4월 말 본격적인 재검토 시작 전까지 거의 원안 그대로의 형태가 유지되었다.<sup>66)</sup> 따라서 정전협상의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작전계획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4월 20일 시작된 ‘리틀 스위치’를 계기로 판도라 작전의 시계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 만큼 이 시점 이후에 기록된 제95.12기 동분대장의 작전경과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연구에 유용하다. 실제 상병포로에 대한 송환개시 직후, 서해지역 유엔 해군 지휘부와 반공 유격부대 사령부 역시 도서지역 철수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판도라 작전 초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 해군 소속 버밍엄함(HMS *Birmingham*)의 함장인 그리닝(Captain C. W. Greening)의 주도하에 종전의 철수 목록표(Evacuation Inventory)가 재작성되었으며, 유격부대 사령부와 협의하에 연안지역 도서로부터의 세부 철수계획도 보완되었는 바, 버밍엄함의 작전기록에 보다 집중하여 철수계획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sup>67)</sup>

이후 6월 9일부터 예비단계의 소규모 철수가 시작되었다. 6월 8일, 오랜 기간 동안 정전협정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던 송환불원포로의 송환원칙이 양측에 의해 합의됨에 따라 정전협정의 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제 최종서명까지 남은 과제는 실상 1951년 11월 이후 변경된 군사분계선을 재설정하는 문제뿐이었기에 전전(戰前)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철수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66)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0 June to 4 July 1952, HMS *Ceylon*, 4 July 1952, para.8; 이후 8월에 판도라 작전 관련 1차례 추가 회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9 August to 5 September 1952, HMS *Newcastle*, 6 September, 1952, paras.23–24.

67)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6 to 20 May 1953, HMS *Birmingham*, 20 May 1953, para.3.

것이다.<sup>68)</sup>

이후 도서 철수과정은 흥미롭게도 이전과는 달리 정전협정의 진행과는 다소 무관하게 추진되어 갔다. 근시일 내에 정전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서해전역 유엔지휘부 내에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18일 이승만 정부의 갑작스런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공산군 측과의 예정된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철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정전협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 예비단계의 철수는 지속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최종 임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영국 해군제독 클리포드(E. G. A. Clifford)의 말처럼, 유엔해군 지휘부는 협상 결렬로 인해 생김 공백 기간을 오히려 추가적인 여유시간 정도로 인식했었다.<sup>69)</sup> 따라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거쳐 8월 1일 판도라 작전의 종료보고가 있기까지 해상철수의 세부 과정은 기존에 재검토된 계획에 따라, 다소 여유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철수에 반발하는 반공 유격부대원들로 인해 작전수행과정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으나, 큰 갈등 없이 철수 완료 제한기간보다 5일 빨리 판도라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sup>70)</sup>

이상 언급한 판도라 작전의 실제 시행과정과 관련한 세부 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953년 6월 이후 제95.12기동분대장이 남긴 작전경과 보고서상의 사건요약일지와 그 예하 함선의 작전일지상의 기록들을 통해 구체적인 철수 과정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관련 연구자

68)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pp.451-461.

69)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p. 2-3.

70)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원 간의 철수과정상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뉴캐슬함(HMS *Newcastle*)의 다음 작전기록을 참고할 것.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13 to 30 June 1953, HMS *Newcastle*, 25 July 1953, paras.5-10.

들의 영국 해군의 한국전쟁기 작전기록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하겠다.<sup>71)</sup>

## 5. 맺음말

“1년간의 격렬하고 극적인 활동” 그리고 이어진 2년간의 “교착상태(deadlock)”라는, 한국전쟁 해군작전을 바라보는 지배적 담론으로 인해 후반기 유엔해군의 작전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sup>72)</sup> 특히 서해전역 후반기 해상활동의 경우 주요 참전국들의 한국전쟁사 연구 자체에 대한 무관심까지 더해져 그 실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서해상의 다양한 활동들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채, 잊힌 전쟁의 가장 잊힌 부분들로 남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도서방어 작전, 그리고 판도라 작전 등 그동안 그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단순히 한국전쟁의 잊힌 단면을 재조명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술한 작전 활동들이 한국전쟁사적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해군의 작전 기록이 해당 작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측 1차 자료에 충실히 기반한다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간 한국전쟁기 유엔군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미국 측 자

71) 이 자료들은 역시 대부분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 중 ADM116-Record Office: Cases에서 찾을 수 있다.

72)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IX.

료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연구 정향의 한계를 넘어 영국을 위시한 여타 참전국 자료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전쟁기 서해상의 주요 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18.9.17.,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영국 해군, 제95.1기동전대, 반공 유격부대, 도서방어 작전, 판도라 작전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ADM 1/23906, Korean Naval Operations—9 January to 8 February 1952,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4/FO2FE2/1209/1, 13 February 1952.
- ADM 1/23915,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50,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16 March to 7 April 1952.
-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23 December 1951.
-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24 July to 12 August 1953, HMS *Birmingham*, 12 August 1953.
-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6 to 20 May 1953, HMS *Birmingham*, 20 May 1953.
-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9 August to 5 September 1952, HMS *Newcastle*, 6 September, 1952.
-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13 to 30 June 1953, HMS *Newcastle*, 25 July 1953.
-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0 June to 4 July 1952, HMS *Ceylon*, 4 July 1952.
-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 ADM 116/6219, HMS *Mounts Bay*—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9 December 1951, HMS *Mounts Bay*, 10 December 1951, CTG 95.1's Comments, 21 December 1951.
- ADM 116/6222, HMS *Mounts Bay*, CTE 95.12's OP-PLAN 12-52,

‘Naval Anti-Invasion Measures for West Coast Islands’, 21 December 1951.

USS *Bairoko* (CVE-115), Action Report 9 April through 18 April 1952, 24 April 1952.

USA Military History Institute, Charisle, Pensilvennia, “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 1983, 1985.

## 2. 2차 자료

A. Field, Jr., James,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Bartlett, Norman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Cleaver, Frederick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Cull, Brian and Newton, Dennis, *With the Yanks in Korea*(London: Grub Street, 2000).

Evanhoe, Ed,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Graham, Thomas, *Furies and Fireflies over Korea: The Story of the Men of the Fleet Air Arm, RAF and Commonwealth Who Defended South Korea, 1950-1953*(London: Grub Street, 2004).

Hallion, Richard P., *The Naval Air War in Korea*(Baltimore, Maryland: Th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mpany of America, 1986).

Hobbs, David, “British Commonwealth Carrie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Air & Space Power Journal*, 18, 4; ProQuest(Winter 2004).

Kim, Inseung,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May 2018).
- Lansdown, John R. P., *With the Carriers in Korea: The Sea and Air War in SE Asia, 1950-1953*(Wilmslow, Cheshire: Crecy Publishing Limited, 1997).
- Lieutenant Colonel Pat Meid, USMCR and Major James M. Yingling, USMC,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ume V-Operations in West Korea*(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1972).
- Malcom, Ben S.,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 Marolda, Edward J.,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ys”,(US Army, Nov. 1984).
- Meyers, Edward C., *Thunder in the Morning Calm: The Royal Canadian Navy in Korea 1950-1955*(St. Catharines, Ontario: Vanwell Publishing Limited, 1992).
-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September, 1967).
- Schuetta, Lawrence V.,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4*(Maxwell AFB, Alabama: Air University, Aerospace Studies Institute, 1964).
- Seibert, Donald A., *The Regulars: An Account of the Military Career of Colonel Donald A. Seibert, USA Ret.* (Victoria, BC, Canada: Trafford Publishing, 2010).
-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국방군사연구소, 1997.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근대사연구』 Vol.62, (2012년 9월).

\_\_\_\_\_,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월).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년 10월).

\_\_\_\_\_,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대:해군본부, 2012).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1』 (해병대사령부, 1962).

### 3. 인터넷 자료

<https://archive.org/details/KoreanCombatActionReports>(검색일: 2018년 8월 17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pn>(검색일: 2018년 8월 27일)

<Abstract>

The Usefulness of Discovering New Resources for the  
Study of the Naval History in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British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

Kim, In-seung

This thesis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for the study of the naval history in the Korean War.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War studies conducted mainly based on the primary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British Royal Navy during their operational period on the West Co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everal remarkable operations carried out by UN forces' in the western sea, which have been largely neglected regardless of their actual value.

The last two years of nav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unknown parts of the war. The latter part of the naval operation has been defined as a classic example of the static warfare on shore. This unspectacular and dull image of static warfare has led to the UN naval campaign being viewed with relative indifference. In addition, nevertheless of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west coast naval operation was virtually assigned to the British Royal Navy, this topic has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from the British. To them, the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garded as an area of very little direct interest. This indifference, obviously, has restricted our understanding of a realistic picture of the UN forces' operation on the wes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low interest in that period,

several UN forces activities to be noted also have been nearly forgotten by the military historians. This wa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could be only properly explained by the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which have been rarely used. For instance, the rarely told stories about the Anti-Communist guerrilla activities, the process of island warfar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final evacuation operation from the northern west islands could be disclosed by the sources. The information in this thesis shows that several comprehensive and objective studies about the Korean War could be conducted if we fully use the British archival resources.

Key words : Royal Navy, Task Group 95.1, The Anti-Communist Guerrilla, Island Defensive Operation, Operation Pandora